

# 라파즈, 석고보드사업 본격화

프랑스의 전자재 전문기업 라파즈의 한국법인인 라파즈 코리아가 국내 전자재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공격경영에 나선다.

석고보드가 주요 품목인 라파즈 코리아는 노후화된 아파트 등의 재건축 붐을 겨냥해 2001년 9월 충남 부곡산업 단지에 석고보드 3공장을 기공했다.

건축양식의 선진화 추세로 단위당 석고보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화재에 강한 불연성 제품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새 아파트에서 석고보드가 필수 전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응한 것이다.

라파즈 코리아는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 기존제품의 단가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석면 건축자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석면시멘트판(밤라이트)의 대체재로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한 집라이트(6mm 석고보드)를 비롯해 T-바(bar) 석고 천장재와 M-바 석고 천장재를 선보인다.

라파즈는 모델링과 철골조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월드컵 특수까지 겹쳐 2002년 판매량을 2001년보다 1.5배 이상 늘리는 영업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 2002년 7월로 예정된 제조업책임(PL)법과 실내공기관리법 개정 등으로 석면 등 반 환경적 제품 수요가 급감하는 반면, 친환경적 제품인 석고보드 매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라파즈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지붕재, 석고 등 전자재 전문그룹으로 70개국에 6만 6000여명의 사원을 두고 있으며, 2000년 총 매출액이 122억유로(14조152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고보드 시장은 라파즈 코리아와 금강석고보드가 양분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3/ 12>